

사설

'15만 민심' 외면말라

지난해 정부당국이 고속철도의 경주도심통과를 발표하자마자 본지는 "경주의 문화유산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성지"라는 인식 아래 "고속철도 노선을 즉시 변경하라"고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본지 48호 참조).

그후 불교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유수단체들이 "고속철도 경주 통과 백지화운동"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범국민적 계몽운동을 펼쳐오고 있다. 이미 이에 동참한 연대 서명자가 15만 명을 넘어섰다.

한편 이러한 범국민적인 경주지키기운동은 불교계 원로님들을 비롯한 중년이나 문화재 전문가들의 성명서에서도 그 정당성이 확인된 바 있다. 특히 문화재에 관한 국내 최고의 정책심사기구인 문화재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전체회의의 결의를 통해 건설교통부의 고속철도 경주 통과 방침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문화재위원들은 성명서에는 "경주의 소중한 민족유산이 고속철도건설로 파괴된다면 역사에 대한 큰 죄를 짓는 수치스런 일"이라고 개탄하였다.

또한 지난해 12월8일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불국사와 석굴암, 해인사와 팔만대장경 등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현재 경주전체를 지구촌의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기 위해 세계문화유산등록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 우리는 정부당국과 경주시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다시한번 간곡히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는 앞서 지적한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의견이 집약된 목적지를 귀담아 듣고, 부처간의 대립·갈등을 더이상 보이지 말고 기존 고속철도의 경주 통과방침을 백지화하는 동시에 하루빨리 새노선을 확정하라. 이제 더 이상 행정편의나 경제논리를 앞세운 개발우선정책을 버리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문화·복지정책을 최우선

의 국가지상목표로 삼아야 한다. 경주는 고도(古都) 그대로 원형 보존되어야 한다는 관계전문가와 각계 각층의 여론을 수용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세계화구호와 국제화·개방화시대에 걸맞게 국제사회의 규율을 잘 지켜야 한다. 이미 경주의 성보문화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공인되어 전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유네스코 제17차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문화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도 우리나라가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도 경주는 세계유산이며, 고속철도경주 통과와 문화재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온다고 경고하였다. 아울러 이 위원회 차원에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표명한 점을 주시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이번 기회에 고도보존법, 문화시특별법 등을 제정하여 민족문화유산을 집중되어 있는 지역을 특별 보존하면서, 그곳 주민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없애고 불이익을 적절히 보상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 지역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문화유산보존의 중요성을 교육홍보하는 일도 정부의 몫이다. 일시적인 선거공약이나 선거의 재물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넷째, 경주시민들은 세계문화유산이요 민족정기의 중심부인 경주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모범적인 문화시민의 자긍심을 발휘해야 한다. 경주가 살아 숨쉬는 역사박물관이며, 분별없는 개발정책이 경주의 역사적 맥을 끊어낸다는 인식을 분명히 해야 한다.

경주는 '개발'보다는 '보존'이 경제적으로도 더 많은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 분명하다. 경주의 발전은 개발로 폐허가 되는 것 보다는 반만년 민족문화유산을 잘 지켜 대대손손 물려주는 것임을 다시한번 명심하자.

열린 마당

청소년 자살

인간존엄성·자아 상실의 원인

도 각 (철나선원 원장)

청소년의 법적인 나이는 9세 이상 24세 미만으로 전체인구의 약 29.5%를 차지한다.

그 중 감수성이 예민한 중기 청소년(15세~19세)이 전체의 약백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사회적 문제를 가장 많이 유발할 소지가 있는 연령으로 볼 수 있다.

이 과성을 지르거나 풀 도하는 것을 TV나 컴퓨터를 통한 간접경험을 하다가 마치 종교인이 그 신앙대상인 불·보살이나 하나님 또는 예수를 직접 만나는 것과 같은 현상으로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심리적인



충격을 받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그들을 모방하여 자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일련의 현상들은 우리 사회에 깊숙이 만연해 있는 물질만능으로 인한 인간존엄성의 황폐와 자아의식의 상실로 볼 수 있으며, 철저한 개인 중심적 사고가 낳은 어리석은 행위임을 재인식시켜야 한다.

종교인들이 앞장서 건전한 여가 선양운동 전개와 더불어 따뜻한 관심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청소년 고민 이해하도록 노력

정 미 나 (목동청소년회관 상담원)

최근 여러 이유로 청소년의 자살이 잇따르고 있다. 자살의 사연이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심각한 것이었는가에 대한 안타까움을 접어 두고라도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이들의 죽음은 청소년에 관심을 가진 성인의 한 사람으로 걱정이 앞선다.

청소년시기는 통제가 약하고 충동적이며 동시에 타인의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시기이다. 따라

서 청소년의 자살 기도에 서는 많은 이유들이 그 동기로 나타난다. 스트레스로부터의 탈출, 스트레스 상황의 회피, 자신의 절망을 타인에게 보이는 방식, 타인과의 관계 회복, 타인의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극적인 노력 등이 그 원인이 된다.



문제아로 분류말고 인격 인정

한 성 우 (학생·복일고 3년)

우리들의 꿈과 야망은 우주보다 넓고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주변현실은 이러한 꿈과 야망을 충족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아무 걱정하지 않는 모범 학생이 되고 싶습니다. 특히 요즈

음 가장 인기 있는 야구 농구를 비롯 취미활동도 많고 싶습니다. 하지만 학생이기 때문에 성적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합니다. 주위의 친구들을 보더라도 학업·이



성·가정의 문제 등으로 인해 자살을 한번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학교에 나오기 싫어하거나 나오지 않는 학생들까지도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어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무작정 비행청소년이니 선도의 대상이라든지 운운하면서 점점 문제아로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이해해주고 공감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인기에 집착한 연예인들의 자살이 잇따르고 있다. 이들 연예인을 우상처럼 여기며 비관자살하는 청소년, 학원폭력 과 성적을 비관한 청소년. 이들이 고귀한 생명을 버리는 요인은 어디에 있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들어본다. (편집자 주)

전문가 이야기

최근 인기 가수들과 예쁜 여학생의 연이은 자살은 교육과 문화등 사회의 여러 분야가 잘못되어 가고 있지 않나 다시 생각하게 한다. 억지로 죽으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은 도대체 그 의지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잘못된 삶의 한가지 행동양식이 아닐까? 죽으려는 환자에게 필자는 우선 성철스님의 <영원한 자유>라는 법문집을 권한다. 자살로 인한 죽음은 고통의 끝이 아니라 더욱 큰 고통의 시작일 뿐임을 알게 하고, 겪고 있는 그런 고통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 볼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권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본래 정말로 살고 싶어했고 죽으려는 순간에도



김진성 (영남대 의대교수)

살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니 억울하기 짝이 없다. "자신은 남들로부터 당연히 사랑받아야 된다"는 욕심과 교만심은 나이가 타

"자살은 고통의 끝이 아니라 더 큰 고통의 시작임을 알아야"

내심으로는 살고 싶어한다. 죽으려다가 깨어난 많은 사람들은 그 순간을 크게 후회한다. 자신은 남들에게 사랑받고 귀한 존재로 여겨지고 싶었는데 뜻대로 잘 안되고 오히려 그들수룩 남들을 괴롭히는 꼴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 참으로 슬프다. 내에 대한 욕심(我相)이 오히려 나를 망치게 하는 대표적인 예이다. 속에서는 울화통이 터지고 쌓일수록 깊이 깊이 스며들며 자신을 무시하는 주위 사람들로부러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자주 들게 되고 화는 종종 남들을 괴롭힌다. 남들은 더욱 자신을 멀리하게 되니 자신은 그 화를 자신의 질병으로 바꾸거나 심하면 자살하기에 이르른다.

남들로부터 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현

인과 자신에 대한 파괴를 초래하고 세상에 태어나서 잔뜩 빚만 지고 가버리는 것이다.

세상에 태어나서 서로를 살리려고 애를 쓰더라도 모든 생물이 죽어가는 하물며 자신을 스스로 죽이는 사람이 정말로 세상의 고통을 아는 것일까? 죽어버리고 싶다는 것은 자신속에 고통이 생겼다는 뜻이며 그 고통은 정말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하여 경험해야 되는 하나의 탐구과정이며 고통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겪고 나면 고통은 소멸되어 없어진다. 본래 잘 살아보려는 의지가 뒤집혀서 죽어버리려는 욕구로 나타난 것인 줄 알아야 하고, 성인의 말씀은 우리의 고통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현대만평

제2의 팔만대장경이...

목어

요즘을 일컬어 '불사(佛事) 흥수' 시대라고 하면 과언일까.

"법당을 증창합니다."  
"요사채를 새로 짓습니다."  
"양로원을 세웁니다."  
"유치원을 건립합니다."  
"미륵대불을 모십니다."  
"3천불을 봉안합니다."  
"대구·경주에 방송국을 개국합니다. 지역분자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세요."  
"미국에서 FM방송으로 불

음을 전하고 있는데 AM으로 전환하고 시간도 늘리려면 경비가 배로 듭니다. 고국에서 지원해 주십시오."  
"북한 수재민에게 쌀을 보냅니다. 풍포애를 발휘하십시오."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개담들의 사회화운동에 동참하여 나와 이웃과 자연이 하나되는 체험을 하십시오."  
"생각나는 대로 열거해본 불사내용인데, 좀 다른 권선도

있다. 불교TV는 주식공모에 화주권을 들고 나섰다.  
"불교TV의 주주가 되어주세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퍼는 사업을 잘 경영하여 꼭 이익을 돌려 드리겠습니다."  
"중생을 교화하는 부처님의 사업이 불사라고 볼 때 불사는 다양하고 많을수록 좋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면 불사내용도 달라지고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 해도 좋을 순위가 있다고 본다."  
지금은 정보화 시대. 포교도 최첨단 뉴미디어화 해야만 제왕을 할 수 있다. 개 사찰에 법당을 세우고 불상을 봉안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대중의 가슴에 동시에 법당을 짓고 부처님을 모시도록함은 시대에 어울리는 더 급한 불사다.  
4부대중 모두 0순위 불사가 무엇인가 생각하고 그 불사에 동참하여 0순위 정법사가 될 때 한국불교는 내일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0순위 불사

알림

"맑고 향기로운 가정만들기" 특별대담

현대불교는 맑고 향기로운 모임(회주 법정스님)· 불교방송과 공동주최로 맑고 향기로운 가정만들기 특별대담을 갖습니다.

"법정스님의 만년"으로 이계진(연문인·26일) 공종원(조선일보 논설위원·2월2일) 박광서(우리는 선우 공동대표·서강대교수·2월9일) 진명스님(맑고 향기로운 모임 사무국장·2월16일)과 연속 4회의 대담으로 진행됩니다.

본지는 다음주 신문(63호)부터 지상중계하며 불교방송은 26일부터 2월16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20분~12시에 방송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996학년도 동방불교대학 신(편)입생 모집요강

(佛敎學科 · 梵唄科 · 佛敎美術科) 4년제, 2년제 및 통신과정 병설

1982년 설립되어 불교 교역자를 양성하고 있는 본 대학은 4년제 대학교육체제와 종합적인 불교교육기관의 면모를 갖추고 뜻있는 불자들의 입학울 바라고 있습니다.

1. 모집과 및 모집인원

학과	교육내용	모집인원	비고
불교학과	불교포교와 불교경전을 교육	60명(통신생포함)	4년제
법패과	불교의식론 및 전통불교의식인 상주권공을 교육	15명	2년제
불교미술과	전통불교미술 교과를 교육	20명	4년제

2. 응시자격 (다음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1)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 (2) 불교 강원 사교과 이상 수료자
- (3) 태고종단 간부의 추천을 받은 자

3. 전형방법

- (1) 필기시험(불교상식, 공통), 실기시험(불교미술과) 및 면접(공통)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996년 1월 15일 ~ 2월 23일 (평일은 10:00~17:00까지, 토요일은 14:00까지, 공휴일은 휴업함)

5. 전형일자 : 1996년 2월 25일 (일) 10:00~18:00

6. 전형장소 : 본 대학 강의실 및 실기실

7. 합격자 발표 : 개별 통지

8. 제출서류

- (1) 입학원서 (소정양식) 1통
- (2)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통
- (3)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통
- (4) 주민등록 등본 1통
- (5) 승적증명서 또는 수계증 사본 1통
- (6) 반명함판 사진 6매
- (7) 전형료 : 30,000원 (단, 불교미술과는 40,000원)

9. 참고사항

- (1) 본 대학 이수자엔 태고종단의 포교사 자격증을 수여함.
- (2) 불교학과 법패과는 18:00~21:00까지 강좌 개설하고, 불교미술과는 14:00~19:30 사이에 강좌를 개설함.
- (3) 통신생은 월 1회 1박 2일 출석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4) 남학생 기숙사 운영 (지방학생은 문의 바람)

10. 기타

-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함.
- (2) 제출서류 중 승적증명서나 수계증 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사람은 나머지 서류만 구비하여 제출해도 됨.
- (3) 우편을 이용하여 입학원서를 교부받고 접수할 수 있으나 전형일에는 반드시 본인 참석하여야 함.
-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 교학처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편입생 모집요강

1. 응시자격

- (1) 본대학 2년 수료자
- (2) 강원 대교과 수료자
- (3) 4년제 또는 2년제 정규대학 졸업자(불교미술과는 미술대학 졸업자)
- (4) 불교교양대학 졸업자

2. 기타

- (1) 응시자의 수학 경력에 따라 2학년 또는 3학년에 편입등록함.
- (2) 4년제 이수자엔 정교교사 자격증을 수여하며, 태고종단 승려엔 중덕법계를 품수함.

\* 원서교부 등 기타 사항은 상기 신입생 요강에 준함.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1) 본 대학 교학처 ☎ 763-0229, 8536
- (2) 태고종 총무원 ☎ 745-2030 ~ 2
- (3) 태고종단 각 교구 총무원
- (4) 경서원 (조계사 앞) ☎ 733-3345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292-1  
동방불교대학 교학처